

都城計劃과 宇宙的 象徴主義

邢 基 柱*

◀目	次▶
序	3. 四分世界觀
1. Topophilia와 原型復歸	4. 對置와 調和의 世界
2. 中心의 象徴과 位置選定	結 語

序

漢文化圈에 있어서 古代 都城計劃의 典型은 周禮式과 長安式으로 兩分된다. 前者는 「周禮」의 冬官考工記에 적혀있는 計劃으로서 北京이 그 典型이고, 後者는 北魏의 洛陽城 아래에 前者를 약간 變型한 것으로서 西安이 그 典型이다.

禮制의 都城은 그 規模가 方九里의 正方形이고 各邊에 三門을 두어 東西와 南北을 잇되, 九經九緯의 直交式 街路網인 것이 特色이다. 그리고 都市의 中心에 宮闕이 配置되고, 官衙는 前面, 市廛은 後面에 配置되며, 祖上神을 피시는 宗廟는 東側, 土地·五穀神을 피시는 社稷壇은 西側에 피시는 이른바 左祖右社·面朝後市의 形式을 그 特色으로 한다.

長安式 都城은 隋의 大興城을 擴大한 唐의 首都를 말하는데, 그 祖型은 北魏의 孝文帝 때에 首都로 定한바 있는 洛陽城이다. 禮制의 典型과 다른 것은 宮闕이 北偏位하고 後市, 즉 宮闕 背面에 配置하던 市廛을 前面의 東과 西로 兩分한 點인데, 이를 除外하면 禮制의 그것과 다른바 없다.

이러한 兩大 都城文化 系列이 同一 漢文化圈에 影響을 미친 것은 의심할바 없으나 韓半島와 日本 만을 보아도 그곳의 獨特한 環境과 精神的

風土에 따라 여러가지의 變型이 있음을 볼 수 있다.

筆者는 中國의 兩大 都城計劃이 韓半島에서 어떻게 變貌되었고, 그것이 어떤 環境과 연관이 있는지를 별도의 論文에서 살핀 바 있다. 여기에서는 韓國을 포함한 汎漢文化圈의 都城計劃과 精神的風土와의 關係를 主題로 삼되 古代의 都城計劃에 帝王의 權威나 臣民들의 社會秩序가 어떻게 象徴되었는지 알아 본다. 옛 사람들의 都城計劃이나 建築計劃에는 반드시 實生活의 便宜를 위한 機能 만이 強調되지 않기 때문이다.

當代에 있어서 帝王의 權威나 臣民들의 社會秩序는 多分히 저들의 宇宙觀을 劇的으로 표현하는 바가 있고, 宇宙 안에 위치한 저들의 見解, 즉 價値體系를 表象하는데, 洋의 東西를 막론하고 옛 사람들에게 共通된 점은 저들의 宇宙觀을 地上에 再現하는 일이다.

本研究은 이러한 宇宙的 象徴主義가 地理學에서 갖는 重要性이 무엇인지 알아 보고, 都城計劃에 있어서 中心의 象徴, 四分世界觀, 主要施設의 對稱的 配置가 風水說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 본다. 人間의 經驗世界와 自然界가 하나의 結合된 體系로 表象된 것이 東洋의 風水觀이라면, 이것이 象徴하는 진정한 意味를 理解하는 일이야말로 傳統文化에 接近하는 地理學의 本領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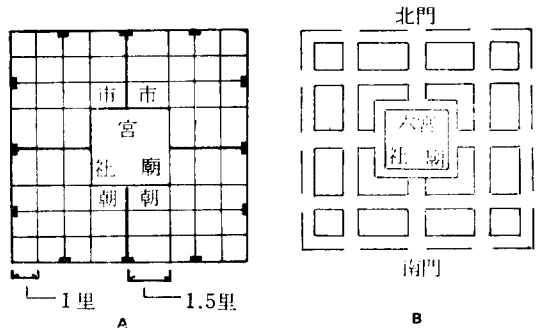
* 東國大學校 教授

1. Topophilia와 原型復歸

1946年 J.K. Wright는 美國地理學者協會 會長演說에서 「무엇 보다도 가장 魅力的인 未知의 땅(terrae incognitae), 그것은 사람들의 혼과 마음 속에 자리 잡고있다」고¹⁾ 하면서 外部世界에 대하여 人間이 부여하는 意味가 地理學의 研究對象으로서 중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Wright가 이러한 문제의식에 도달한 것은 과거의 地圖나 地誌를 검토하여 과거의 景觀을 復元하면서 무엇보다도 外的世界와 內的世界와의 관련문제를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후에 이러한 문제를 發展시켜서 自己 땅에 대한 愛着과 존경이 合體된 感情의 連結을 “Geopiety”란 말을 써서 美國에 있어서 역사를 고찰하였던 것이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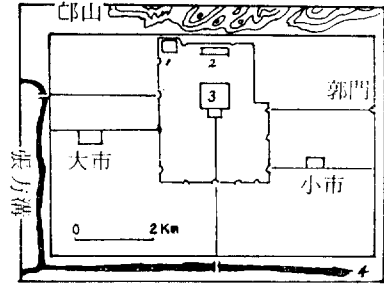
Wright의 문제의식은 1961년 Yi-Fu Tuan이 제시한 “Topophilia”의 개념, 즉 인간의 경험에 의하여 價値가 부여된 “場所”의 개념³⁾, 또는 D. Lowenthal이 추기한 바와 같이 個人의 經驗, 想像力, 學習 등을 기초로 한 “景觀이미지”⁴⁾, A. Buttimer가 주장한 “社會的空間”⁵⁾, Porter와 Lukermann이 주장한 “유토피아 空間의 歷史的檢討”⁶⁾ 등을 통해서 종래의 實證主義 地理學에 대한 認識論的 反省과 함께 이른바 人本主義 地理學(Humanistic Geography), 또는 現象論的 地理學(Phenomenological Geography)이란 새로운 흐름을 낳게 된다.

“Topophilia”란 말의 大綱의 뜻은 “土地나 物質의 環境에 대한 人類의 愛着”이라 풀이 되지만 Y.-F. Tuan이 제시한 多樣한 事例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⁷⁾ 그중의 하나가 先祖回歸



A. 藤田元春의 復元圖(日本)
B. 戴震의 考工記圖(淸)

그림 1 周禮式 都城計劃



金墉城 2 北宮 3 宮城 4 洛水

그림 2 長安式 都城
(北魏의 洛陽城으로 長安의 祖型이다)

(Atavism)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Tuan은 地圖學史나 地理思想史에 크게 影響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自然과 人間과의 世界를 하나의 結合된 體系로 表象한 것이 宇宙論的 圖式인데, 이것은 方向·色·動植物·大地·天·水·風·樹 등 몇가지 要素의 結合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宇宙的 象徵主義(Cosmic Symbolism)를 통해서 우리는 傳統社會의 本質이나 地人關係를 쉽게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1) Wright, J.K. 1947, "Terra Incognitae: the Place of the Imagination in Geography" A.A.A.G., Vol. 37, p. 15.
 2) Wright, J.K., 1966, "Notes on Early American Geopiety," Human Nature in Geograph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p.250-285. "Geopiety"는 Geo(土地)와 piet(의경)의 合成語이고 piet는 라틴어의 pietas에서 온 것이다.
 3) Tuan, Y.-F., 1961, "Topophilia, or Sudden Encounter with the Landscape," Landscape, Vol. 11, pp. 29-32.
 4) Lowenthal, D., 1961, "Geography, Experience and Imagination," A.A.A.G., Vol. 51, pp.241-260.
 5) Buttimer, A., 1969, "Social Space i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Geogr. Review, Vol.59, pp.417-426.
 6) Porter, P.W. and Lukermann, F.E., 1976, "The Geography of Utopia," Geography of the Mind(Lowenthal and Bowden ed.) New York pp.197-223.
 7) Tuan, Y.-F., 1974, Topophilia, 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ttitudes and Value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260p.

天空界原型(Celestial Archetype)을 모방·復歸하려는 옛사람들의 思惟(Archaic Spirituality)와 향수가 地上에 小宇宙로 表象되었다면 이것이야말로 自然과 人間이 하나의 世界로 結合된 地理的 랑가쥬(Langage)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事物이 시작한 太初의 時間, 즉 위대한 時間(Great Time)에 復歸하려는 鄉愁에 대한 意味와 機能을 M. Eliade는 原型과 反復(Archetypes and Repetition)이라 要約하고, 이에 대한 事例를 크게 세가지로 分類하고 있다.⁸⁾ 첫째는 古代人에게 實在하는 天空의 原型의 모방기능, 둘째는 家屋이나 寺院이나 都市가 어떻게 世界의 中心에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中心의 象徵(Symbolism of Center), 셋째는 英雄이나 神, 또는 祖上들에 의하여 처음부터(ab origins) 설정된 여러가지 行爲를 신중하게 反復함으로써 비로소 자기들에게 속한 의미를 터득하고, 이를 體現하는 祭儀나 俗의 行爲(Profane Gestures)들이다. Y.-F. Tuan이 제창한 “Topophilia”는 이상과 같은 M. Eliade의 事例처럼 象徵의 意味가 부여된 土地空間을 뜻한다.

결국, 小宇宙란 一團의 人類가 社會生活을 영위하면서 外部世界에 대해 간직한 集團 Fantasy의 表象이며, 하나의 文化型이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個個人의 表象이 同類化되고 正當化되는 時間을 겪어야 한다.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古代의 都城計劃에 있어서도 그 位置選定, 宮闕과 각종 施設의 配置, 幹線道路軸, 都城의 輪廓, 城門의 配置, 坐向 등이 반드시 機能과 便宜 만을 따른 것이 아니고 天空의 原型이나 神·英雄·祖上들의 行爲를 모방하는 集團 Fantasy의 表象으로 理解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宇宙와의 調和를 위한 志向을 Heine-Geldern은 「宇宙呪術의世

界觀」이라 부르고 있다.⁹⁾

Tuan이 제시한 Topophilia는 「意味로서의 空間」, 「理解의 對象으로서의 空間」을 地理學의 主題로 삼기 위한 地人關係의 새로운 표현이다. 「意味로서의 空間」은 흔히 古代人의 宇宙의 構成(Structuring Cosmos, Structuring World)으로 나타나는바 옛 사람들이 남겨 놓은 각종 景觀에서 이를 쉽게 읽을 수 있다. 옛 사람들의 宇宙論의 思考를 H. Frankfort는 “Pars pro toto thinking”이라 했다. 이것은 部分(Pars)이 全體(toto)를 나타낸다(pro)는 뜻이며, 小宇宙는 大宇宙를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¹⁰⁾

大宇宙를 小宇宙로 表現하는 行爲는 결국 原型에의 復歸·反復을 뜻하므로 「意味로서 空間」을 理解하자면 原型復歸에 관한 많은 事例와 그 뜻을 깊게 理解하여야 될 것이다.

2. 中心의 象徵과 位置選定

M. Eliade는 中心이 지니고 있는 구조상의 상징기능을 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즉 聖山(Sacred Mountain)은 세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며, ② 모든 寺院·宮殿·聖都是 聖山이고, ③ 따라서 이러한 곳은 하늘과 땅, 그리고 地下界가 서로 만나는 地軸(axis mundi)에 해당한다고 하였다.¹¹⁾ 우리나라의 太白山(白頭山), 日本의 富士山이 각각 民族의 聖山, 또는 靈山으로 알려져 왔고, 閉鎖的인 옛날에는 光州에서 無等山, 大邱에서 八公山, 釜山에서 金정산이 저들 隣接 住民들의 성스러운 中心을 表象했을 것이다.

인디아 사람들은 세계의 中心을 須彌山(Meru)이라고¹²⁾ 생각하고 그 위에 北極星이 있다고 생각한다. 都市를 建設할 때 最高의 神이 居住하는 須彌山의 位置를 象徵하면서 中心을 設定하

8) Eliade, M., 1945, *Cosmos and History* (鄭鎮弘 譯) p. 17.

9) Heine-Geldern, R., 1930, *Weltbild und Bauform in Südostasien* (大林太良 譯, 東南 아시아における 國家と 王朝の觀念, 1972)

10) Cairns, G.E., (이성기 譯, 1977, 東洋과 西洋의 만남), 유럽사, p. 23.

11) Eliade, M., 1945, (譯版), 前掲書, pp. 26-27.

12) 우랄·알타이語에 Sumbur, Sumur, Sumer라는 뜻은 “中心山”을 일컫는다.

Eliade, M., 1968, *Traité d'Histoire des Religions*, Paris, Payot (久米博 譯, 1974, 太陽と天空神, 세리카書房), p. 165.

고, 저들은 그 곳에 九層의 段階式 寺院을 配置한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러한 山을 大地의 山(The Mountain of the Lands)이라 했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타볼(Tabor)山은 tabbúr, 즉 배꼽을 뜻하는데, 중심의 威光을 發하는 곳이 大地의 배꼽(tabbúr eres)이다. 우리의 어린이들은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배꼽으로 낳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배꼽은 母胎를 象徵하고 母胎는 創造의 根源이요 中心이요 原型인 것이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세계의 중심이 Golgotha 山인데, 이곳은 아담이 創造되고 同時에 崩壞된 宇宙의 頂上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漢文化圈의 思考는 “氣”로 표현된다. 특히, 中國과 韓國에 있어서 都城을 計劃하는 사람들은 그 땅의 “氣”가 적합한가를 세심하게 알아본다. “氣”는 쉽게 말해서 宇宙의 呼吸이고 元氣이며, 여기에서 陰陽이 胚胎한다. 그러므로 周易에 「太極은 生兩儀」라고한 兩儀가 陰陽이니 결국 “氣”는 “太極”이요 萬物의 根源인 “大地의 배꼽”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漢唐의 注流學者들도 「太極은 天地未分前의 元氣로 이요, 太初太一이다」고 하였다.¹³⁾ 都城의 번영은 한마디로 氣의 場所의 흐름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 흐름은 地形에 따라 空間의 變異할 뿐 아니라 天體의 動向·回轉에 따라 時間的으로도 變異한다. 이러한 氣의 時空的 樣相을 分析하는 學問이 이른바 風水術이고, 이것을 特權的으로 행하는 者를 地官 또는 關尹家라고 했다.

風水의 定義나 語源을 쉽게 말할 수는 없으나 郭璞의 葬書에는 “生氣는 바람에 실리어 흩어지고, 물에 닿으면 머무는 까닭에 바람과 물, 즉 風水라 하는 것이다. 따라서 風水의 方法은 물을 얻음이 첫째요, 바람을 막음이 그 다음이라 하였다.”¹⁴⁾ 즉, 生氣에 대한 藏風得水에서 온 말이다. 萬物의 造化力을 갖는 生氣는 그 母胎가 大地이고 大地가 哺育力을 갖는다. 그래서 땅속

에는 항상 氣가 흐르고 있고, 氣가 充滿한 곳이 陰宅風水의 穴로 선택되고 陽基風水의 宮闕 터로 선택된다.

宮闕 터는 周禮의 都城을 例로 든다면 方九里의 正方形 平地에서 한 中央을 점한다. 이것은 陰宅風水의 穴이나 마찬가지로이다. 그리고 이곳이야말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요, 四季가 混合하고, 雨와 風이 만나고, 陰과 陽이 調和되는 軸上이다. 다시 말해서 都城 自體를 宇宙像(Imago Mundi)이라 본다면 宮闕 터는 곧 威光의 發源이요 大地의 배꼽이나 마찬가지이다.

北京의 紫禁城은 典型的으로 이를 象徵한다. 이는 東西南北이 交叉되는 軸道의 中心에 자리 잡고 있으며 城壁은 紫色으로 塗裝했다. 紫色은 世界의 中心에서 빛나는 北極星의 輝光을 象徵하고 있으며, 紫禁城의 바로 天頂에 星辰의 中心인 北極星이 있다고 생각한다.¹⁵⁾ 따라서 紫禁城에는 하늘과 땅을 매개하는 天子가 위치한다. 그의 玉座 앞에는 三段의 大理石 臺座가 있어서 謁見의 空間으로 쓰이고 三段의 지붕을 통해서 하늘과 통하도록 宮闕은 높고 웅장하다. 玉座의 주변은 中央을 象徵하는 黃色을 칠해서 장식했다.

漢文化에 있어서 中心像은 宮闕 以外에 神壇 樹·서낭당·하늘나무 등이 있다.¹⁶⁾ 인디아와 앙코르 文化에서는 宮闕 대신에 寺院으로 象徵된다. 그것은 宗教와 政治의 優位에 따라 어느 쪽이 선택되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陰宅風水에서 地脈은 龍으로 表現되고 地脈에 흐르는 生氣를 結合하는 곳이 穴(墓)로 表現된다. 穴前의 墓板에 해당하는 곳이 明堂이요, 穴을 둘러싼 山水의 形勢를 「砂」라고 하며, 穴과 砂가 一定 규모의 작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局」이라고 한다.¹⁷⁾ 이것이 都城과 같은 陽基風水에서는 穴이 宮闕이요 核心이며, 明堂은 萬朝百官이 天子를 拜賀하는 朝堂에 해당한다. 그래서 周禮의 都城 뿐 아니라 長安式都城

13) 宋錫求, 1984, 栗谷의 哲學思想, 中央新書, pp. 14-15.

14) “地理正宗”, 卷二, 葬書, 臺灣, 端成書局, 1969년刊(崔昌祚: 韓國의 風水思想, 1984, 民音社. 再引用)

15) 上田正昭 編; 1976, 都城, 社會思想社, pp. 357-358.

16) 金烈圭, 1976, 朝國의 神話, 一潮閣, pp. 41-58.

17) 村山智順, 1931, 朝鮮의 風水, 朝鮮總督府, pp. 13-20.

에서도 항시 宮闕前面에 朝廷을 배치한다. 穴의 背山을 두고 가까운 곳이면 主山 또는 鎮山이라고 하고, 먼곳에 있으면 이것을 祖山 또는 宗山이라고 한다. 이것은 國都選定에서는 크게 觀心을 두는 部分으로 洛陽의 芒山, 平壤의 牡丹峯, 開京의 北岳, 漢陽의 北岳, 慶州의 小金剛山이 모두 鎮山에 해당한다. 鎮山은 陽基를 鎮護하는 산이란 뜻인데, 陽基를 卜함에 있어서 山을 必要로 하는 것은 神이 降臨하는 곳이 山上이요, 都城이나 部落의 保護神을 鎮座하는 곳이 山이기 때문이다.¹⁸⁾ 만약에 넓은 平野나 해변과 같이 山이 없는 곳에서는 老樹木을 神壇樹 또는 하늘나무로 삼아 鎮山을 대신한다. 後述하는 바와같이 穴이나 宮闕의 前面에 內水口와 外水口가 있고 案山과 朝山이 있어 하나의 形局을 이룬다면 漢陽을 例로 할때, 三角山(祖山)→北岳山(鎮山)→宮闕→清溪川(內水口)→南山(案山)→漢江(外水口)→冠岳山(朝山)은 全體로 合一하는 象徵的 方向이요 軸이다. 즉, 이軸은 宮闕과 같은 聖所에 이르기 위한 通路이며, 俗에서 聖에 이르는 軸인데 여러 階段을 거쳐야 이를 수 있는 험난한 길이다. 실제로 그 길은 하나의 통과제의(Rate of the Passage)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中心에 이르자면 물(內水口·外水口)을 건너야 되고, 높고 웅장한 궁궐은 다시 鎮山이나 祖山을 通하여 비로소 하늘에 닿을 수 있으니 天堂길과 같다. 이러한 흐름을 林忠伸은 「向天的 흐름」이라 이름하고 있다.¹⁹⁾ 나일강에서 피라밋에 이르는 길, 인디아의 Taj mahal의 十字水路와 Mausoleum建物, 마야文明的 Kukulcan 神殿과 聖井(Cenote)은 水→神殿·宮→天으로 연결되는 軸으로서 우리의 內·外水口→宮殿→鎮山→祖山의 연결 軸과 비유된다. 新羅王京 慶州에 있어서 小金剛→脫解王陵→殿廊址→土城址→半月城 中心部→南山을 잇는 線은 묘하게도 慶州를 南北으로 나누는 軸線이 되어 있다.

空間을 組織化하는 이 軸線은 中心이나 聖에

이르는 通路이기 때문에 通路 가운데의 수 많은 要素들을 상호간에 統一하여 더 큰 全體로 合一시키는 하나의 象徵的 方向을 나타낸다.²⁰⁾ 또한, 東西와 南北의 軸線은 中心에서 合一함과 동시에 中心에서 發하는 輝光과 같다.

中心을 設定하는 行爲는 穴을 찾는 行爲인데, 이것도 그 질차가 매우 機能적이고 象徵적이다. 李成桂가 易姓革命에 성공하고 都邑을 漢陽으로 選定하는 過程에서는 朝廷의 重臣들과 陰陽刪定 都監 및 書雲觀員, 그리고 王師 無學과 같은 風水大家들과 現地를 視踏하면서 자문을 받은바 있다. 實錄에 나오는 問答를 보면 역시 傳統的 風水觀에 따라 形局의 良否를 論하되 漕運이 어떻고, 水泉이 어떻고, 宮寢과 社廟의 터가 좁다느니 하는 地形이 都市의 機能에 미치는 實際的 內容이 主軸이다.²¹⁾ 다만 松都의 地氣가 衰하였 다든지 鷄龍山의 山勢가 回龍觀祖하고, 山太極水太極의 形局이라든지 하는 風水論의 象徵主義가 現實的 機能主義와 범벅이 되어 있는 點에 風水論의 難解함이 있다.

中國에서는 거북卜을 행하고, 每日의 北極星 位置를 確認하며 夏季의 正午에 太陽에 의한 그림자를 觀測하여 宮闕의 位置를 定한다. 이것은 民族의 守護神과의 意思傳達이 可能한 中心點을 찾고 正確한 坐向을 定하므로써 小宇宙를 창조하는 行爲이지만 역시 現實的 機能이 전혀 無視된 象徵的 行爲만은 아니다.

이러한 “機能과 象徵”의 兩面性은 그리이스나 로마의 都城建設에서도 흔히 있는 사례이다. 옛날, 國都의 位置를 정하는 사람들은 우선 그 場所에 棲息하는 動物의 肝臟을 注意 깊게 검사하여 動物들의 건강을 알아본다.²²⁾ 動物의 肝臟을 로마에서는 오랜동안 神託用으로 消費한바 있는데, 이것이 初步科學用으로 변한 것이다.

자세한 記錄은 없으나 位置選定의 大任을 맡은 地師들은 沐浴齋戒하고 各種禁忌에 구속되었을 것이며, 一般民家の 開基祭에서 보는바와 같

18) 村山智順, 1931, 上揭書, pp. 746-748.

19) 林忠伸, 1981, “母空間의 原型: 물과 向天的 흐름”, 建築, 大韓建築學會誌, 25~103, pp. 17-22.

20) 張聖浚, 1978, “風水地理의 局面이 갖는 建築의 想像力에 관한 考察”, 建築, 大韓建築學會誌, 22-85, p. 20.

21) 任德淳, 1985, 서울의 首都起源과 發展過程,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pp. 34-42.

22) Wright, A.F., 1965, “Symbolism and Function,”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24, Assoc. of Asian Studies(日譯, 歷史教育, 1966, 14~12, pp. 5-6)

이 宮闕을 建造할 때에도, 地神에게 土地의 使用을 위한 祭禮를 갖추었으리라 짐작된다.²³⁾ 왜냐하면 位置選定과 宮闕의 建造 行爲가 곧 宇宙의 創造를 모방하는 神의 行爲의 反復이기 때문이다. 百濟의 武寧王陵 發掘 時에 二枚의 閃綠岩에 陰刻된 買地券이 出土되었다. 이것은 穴에 대한 神의 加護를 祈願하는 呪術的 行爲로서 地母神에게 땅을 買入하는 代錢을 支拂하고 받은 領收證인 것이다. 地母神은 土王·土伯·土父母 등의 말로 표현되어 있고, 領收한다는 뜻으로 「立券爲明」이라 쓰여 있으며, 文書에서 밝힌대로 즉시 실시하라는 道敎的 표현으로 「不從律明」이란 어귀가 끝맺음이 되어 있다.²⁴⁾

이러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황무지를 개간하는 일이나 墓를 쓰는 일, 궁궐을 建造하는 일, 都城을 築造하는 일 등은 Chaos의 世界에 形態와 規範을 부여하여 Cosmos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作業은 여러가지 祭儀가 행하여지나 특히 所有를 確認하는 祭儀가 널리 알려져 있다. 베다시대의 인디아에서는 土地의 合法的인 確認을 위해서 Agni 神에게 바치는 祭壇을 쌓았다.²⁵⁾ 폴투갈이나 에스파니아인들이 중남미의 땅을 점령할 때, 십자가를 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유하였다. “새로운 탄생”의 정당화이며 宇宙創造를 상징하는 세례의식과 같은 것이다.

인디아의 都城建築에도 宇宙創造를 재현하는 祭儀가 행하여진다. 占術師에 의해서 決定된 都城의 中心地는 마치 우리의 龍의 象徵처럼 저들은 뱀의 머리를 상징한다. 이곳은 同時에 뿌루샤 라고 일컫는 最初의 神話的 人間의 배꼽에 해당하기도 한다. 이곳에 구멍을 뚫어 礎石과 같은 모양의 石板을 넣고, 그 위에 향아리가 놓이며, 향아리 위에 돌·金·銀으로 만든 거북과 蓮花의 피라미트가 만들어진다. 石板과 蓮은 세계가 아직 未開함을 상징하고, 거북은 創造神 시마·비슈누 神의 動物的 상징이다.²⁶⁾

그러면, 漢文化圈의 都城에서 長安式都城의 宮闕이 北偏한 사실을 어떻게 理解할 것인가? 本來 宇宙의 象徵主義에서 中心이란 반드시 物理的 中心을 뜻하지 않는다. 이것은 母胎요, 聖所요, 根源이요, 天과 地의 만남이란 뜻에서 中心이기 때문에 測量상의 中心이나 아니냐가 문제 되질 않는다. 더구나 周易에 있어서 太極을 어떻게 解釋하느냐에 따라 物理的 中央을 選擇할 수도 있고, 北偏 位置, 또는 南偏 位置를 擇할 수도 있다. 타일란드는 옛날 부터 王朝의 首都가 南偏 位置이었는데, 이것은 어디 까지나 中心의 象徵이지 地理的 中心은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星座 中에 가장 밝은 별이 北極星이고, 이것이 天球廻轉의 北極과 거의 같은 方向, 즉 地球 自轉軸과 거의 같은 方向이므로 地上에서 北極星에 대응되는 天子의 位置도 北쪽을 象徵하는 思考로 발전한 것이다. 이것이 長安式都城計劃의 宇宙의 象徵主義가 아닐까 推測된다.

3. 四分世界觀

自己를 에워싸고 있는 空間은 上下, 左右, 前後로 方向이 區別된다. Euclid 空間에서는 이들이 모두 等質性이지만 人間이 知覺하는 空間은 서로가 異質的 意味를 갖는 心理的 場이요, 人間의 經驗世界를 表象한다. Y.-F. Tuan은 上下를 수직공간, 前後左右를 水平空間이라고 할 때, 이들은 각각 超越性과 內在性, 肉體에서 分離된 意識의 概念과 土地에 局限된 同一性의 概念과 對比된다고 하였다.²⁷⁾ Norberg-Schulz도 垂直空間을 神性的 次元으로 看做하여 그것은 일상 생활보다 高次的이거나 혹은 低次的인 어떤 現實, 또는 重力, 즉 地上의 存在를 지배하거나 혹은 重力에 굴복하는 어떠한 現實을 向한 하나의 通路를 나타낸다고 논하고 있다.²⁸⁾ 이에 대해서 水平空間은 人間의 구체적인 行動世界를 담고 있어서 모든 方向이 平等하고 무한히 확장하는 面

23) 張保雄, 1981, 韓國의 民家研究, 寶晉齋, pp. 33-47.

24) 文公部, 1973, 武寧王陵, pp. 41-61.

25) Eliade, M., 1945, Cosmos and History (鄭鎮弘 譯), p. 24.

26) 上田正昭 編, 1976, 前掲書, pp. 3:7-342.

27) Tuan, Y.-F., 1974, 前掲書, p. 28.

28) Norberg-Schulz, C., (金光鉉 譯, 1981, 實存·空間·建築, 產業圖書出版社), p. 51.

을 구성한다고²⁹⁾ 보았다.

그러나 水平空間도 人間의 知覺 側面에서는 相異한 의미를 나타내어 때로는 季節, 때로는 時間 때로는 色相, 때로는 人體, 때로는 動植物, 때로는 守護神을 象徵함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東西南北」이란 말이 생기기 전 부터 人間은 이러한 方向을 意識하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東西南北은 本質적으로 同一空間이 아니고 이들 各各은 自身の 獨特한 實在性과 意味 즉 固有의 神話的 生命을 가지고 있다.³⁰⁾ 人間은 東西南北의 基本方位와 垂直軸으로 구성된 宇宙體系의 중심에 위치함으로써 宇宙와 관련을 맺고 있으며, 人間은 自己와 自己를 예외한 對象, 즉 自然秩序와의 關係를 意識하고, 이를 自己들의 世界를 構成(Structuring)하는데에 利用한다. 自然現象에 대한 人間의 態度는 感情移入의 印과 동시에 知的이며, 이러한 狀態는 原始人 뿐 아니라 技術時代에 사는 現代人에게도 뚜렷하다.³¹⁾

方位體系는 人間의 外的環境으로서의 秩序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作用할 뿐 아니라 그러한 秩序있는 環境 內에 人間이 居住함으로써 心的平安과 生活의 安定을 必하게 되며, 이러한 思考는 個人的 住居建築 뿐 아니라 寺院·都城·國家行政의 組織 등 모든 側面에 「中心과 四分」이라는 거의 共通된 宇宙圖式으로 表現되는 것이다.

周禮의 都城에서는 整地作業이 끝나면 中心位置이 窺말을 세워 그 그림자로 하여금 四方을 確定한다. 都城은 東西와 南北의 大軸道로 四分되며, 南北의 軸道는 洛陽城의 경우에 銅駝街, 長安城의 경우에 朱雀街라고 한다. 이 軸道는 天子의 專用路이며 「하늘에 獸從하는」 이른바 承天門을 통해서 天子를 謁見하는 通路이기도 하다. 東西와 南北의 軸道로 하여금 都城을 四分하는 것은 四分된 世界를 中心·至高의 位置에서 다스린다는 뜻이다. 그리고 中心의 “氣”가 四方으로 波及하여 宇宙 全體에 미친다는 뜻이다. 즉, 中心의 表象인 世界의 軸은 存在論의 으

로는 移行點이나 같다.●

宇宙를 四分하는 思想은 洋의 東西를 가릴 것 없이 汎文化的 現象으로 나타난다. 인디아 사람들은 中心의 須彌山을 두고 四方에 北洲·南洲·西洲·東洲가 있고, 저들이 사는 곳을 南瞻部洲라고 하였다. Jamb(瞻部)라는 大樹가 茂生하는 dvipa(洲)란 뜻이다. 여기에서 大樹는 우리의 神檀樹와 같은 것을 象徵하며, 佛敎에서 보리수도 같은 뜻으로 理解된다. 옛날 中國文獻에 四海·四荒이란 말이 使用되었고, 東晉의 太元 17年(AD. 392)에 漢譯된 「十二遊經」에도 東에 晉天子, 南에 天竺國天子, 西에 大秦國天子, 北에 月支天子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고 하였다. 玄奘의 大唐西域記에도 瞻部洲에 四主가 있는데, 南쪽의 象主, 西쪽의 寶主, 北쪽의 馬主, 東쪽의 人主라고 하였다.

殷代의 王國이 中心과 四個地方으로 나뉘어 있었고 首都 “商”의 郊外는 東西南北의 四方位로 分割되어 있었다. 北京은 造營 當初부터 四區로 分割되어 있으며 淸朝는 市內에 四城軍團을 두어 東城區는 靑色軍旗, 西城區는 白色軍旗, 南城區는 赤色軍旗, 北城區는 黃色軍旗로 表徵하였다. 周易에서 方位와 色은 서로 결합된 이미지로서 中央은 항상 黃色으로 表象된다.³²⁾ 紫禁城 內의 玉座 주변이 黃色이고 我們的 勤政殿 앞 문살이 金色인 것 처럼 世界의 軸은 항상 威光을 發하기 때문이다. 鄭尙驥의 東國地圖를 보아도 王都 漢陽이 포함되는 京畿道는 純黃, 忠淸道는 紅白, 全羅道는 純紅, 慶尙道는 靑紅, 江原道는 純靑, 黃海道는 純白, 平安道는 白黑, 咸鏡道는 純黑으로 되어 있다.³³⁾ 이것도 中央의 純黃을 除外하면 靑紅白黑의 四分世界이다.

舊唐書에 보면 “高句麗國 舊分爲五部”라 되어 있고, 隋書에도 百濟는 “畿內爲五部 部有五巷”이라 되어 있다. 이때 五部制란 東西南北에 中을 포함한 것이다. 中央을 제외하고 天下는 四分되어 있다. 高麗에도 五保制가 있었고 朝鮮朝에도 五部坊里, 五家統이란 시스템이 있었으므

29) 上揭書, p. 52.

30) Cassirer, E., 1977, The Philosophy of Symbolic Forms (II), Yale Univ. Press, p. 98. (R. Mannheim 譯)

31) Tuan, Y.-F., 1971, Man and Nature, Resource Paper, No. 10, A.A.A.G., p. 18.

32) 본래는 北쪽이 黑色, 中央이 黃色인데 약간 다르다.

33) 李丙燾, 1960, “鄭尙驥와 東國地圖”, 書誌, 第1卷, 1號, p.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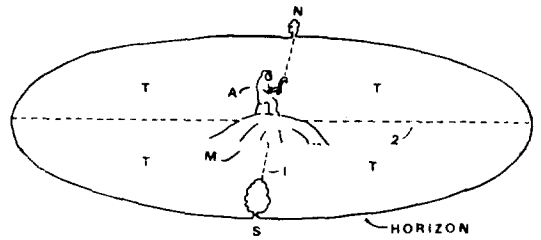
로 결국 都城計劃에 있어서 이러한 構圖는 中心의 象徵과 自然的으로 연결되는 것이며 中心에서 發하는 太陽의 輝光이 四方을 支配한다는 뜻이다.

新羅의 王京도 芬皇寺 十里路를 東西軸, 中央大路를 南北軸으로 간주할 경우에 四分世界가 된다. 首都 漢陽은 前朝 松京의 部坊制를 따라 五部 五十二坊으로 나뉘었다. 五行의 木金火水土의 순에 따라 東部·西部·南部·北部·中央으로 나뉘이고, 이들은 각각 仁·義·禮·智·信의 五德을 象徵하며, 靑龍·白虎·朱雀·玄武·黃龍의 五方神으로 表象된다.³⁴⁾ 그래서 東大門을 興仁之門, 西大門을 敦義門, 南大門을 崇禮門, 北門을 炤智門이라 했고, 中央에 普信閣을 둔 것이다.

인디아의 都城 역시 中心은 須彌山을 상징하는 寺院이 있고, 北쪽에 브라만, 東쪽에 쿠샤트리야, 南쪽에 베샤, 西쪽에 슈우도가 居住하도록 四分되어 있으며, 각각 白·赤·黃·黑色으로 표징된다.

타일란드의 國都 역시 至高의 中心이다. 그러나 地理的 中心이 아니라 南偏하여 위치한다. 「방곡」이란 語源이 「하늘의 王都」 또는 「守護神의 都市」란 뜻에서 온 것인데, 방곡의 王宮은 역시 東西南北 四方의 世界를 向하여 있다. 이곳 사람들은 本來 東쪽에서 탄생하여 南쪽에서 살다가, 西쪽에서 死亡하여 北쪽에서 火葬된다는 思考와 象徵의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四分的 世界觀은 建物の 四翼이 十字로 交叉되고, 交叉된 部分은 階段狀 尖塔이 솟아 있으며 尖塔의 直下에 해당하는 곳이 玉座로 配置되는 建築思想에 반영되고 있다.

四分的 世界觀은 유럽 사람들에게서도 볼 수 있다. 古代 로마의 로물루스(Romulus)가 로마로 豫定된 神聖의 場所, 中央의 凹地(Mundus)



N(北), S(南), T(Templum, 限定空間), 1(Cardo), 2(Decumanus), M(Mundus), A(Augur, 占卜官)

그림 3 Roma의 四分劃

에 서서 牧杖으로 四方을 표시하여 都市를 일단 四分했다는 傳說이 있다.³⁵⁾ Roma quadrata(로마 方格)란 宇宙의 整然한 질서를 都市計劃 또는 土地區劃에 反映한 것으로 南北軸道를 Cardo, 東西軸道를 Decumanus라하여 四分世界의 기준으로 삼는바³⁶⁾, Cardo는 北極星을 따른 것이고, Decumanus는 太陽의 軌道를 따라 向이 정해진 것이다. 그리하여 四分된 하나하나의 一定한 限定空間을 Templum이라고 부른다.³⁷⁾ 이와같이 四分된 世界는 中心으로 부터 發하는 太陽의 輝光을 象徵하기 때문에 흔히 「太陽의 世界觀」이라고도 한다.³⁸⁾

옛 사람들이 생각하는 都市輪廓은 圓形 아니면 正方形의 兩大 प्रकार이다. 古代 로마를 비롯한 많은 都市는 前者에 속하고 中國古代의 都城은 그 祖型이 後者에 속한다. 우리의 그것은 본래 中國의 都城을 모방하고 있으나 地形의 特性에 따라 圓形을 築造하기 때문에 대체로 不規則한 圓形에 가깝다.

본래, 中國 사람들의 宇宙觀에 天空은 圓으로 表象되고, 大地는 方形으로 象徵된다. 呂氏春秋에서 「天圓地方」이란 곧 하늘이 둥글고, 땅은 평탄한 方形인것을 말하는 것인데³⁹⁾, 하늘에 祭祀를 지내는 天壇은 둥근 圓丘에 圓形의 三層 지붕으로 된 祈年殿⁴⁰⁾을 포함하는 反面, 땅에

34) 鄭鍾復, 1978, 儒教哲學思想概說, 螢雪出版社, pp. 102-104.

35) 프르타르크 英雄傳, 參照 mundus는 monde(세계)와 같은 말이다.

36) 藤田元春, 1929, 尺度綜考, 臨川書店, pp. 362-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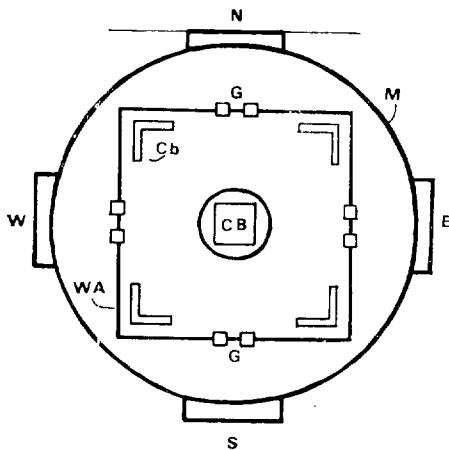
Norberg-Schulz, C., 1976, Meaning in Western Architecture, Praeger, p. 84.

37) Norberg-Schulz, C., 1976, 上揭書, p. 84.

38) 大林太良 編, 1972, 神話·社會·世界觀,

39) 黃元九, 1976, 中國思想의 源流, 延世大學校出版部, p. 19.

40) 이 건물의 지붕은 하늘 색의 靑蓋瓦이다. 圓丘는 “환구”가 아니고 “원구”라고 읽는다. (黃元九, 上揭書, p. 32)



E(東·春), S(南·夏), W(西·秋), N(北·冬),
G(門), CB(中央建物), M(濼), WA(담장),
Cb(四周建物)

그림 4 西安의 明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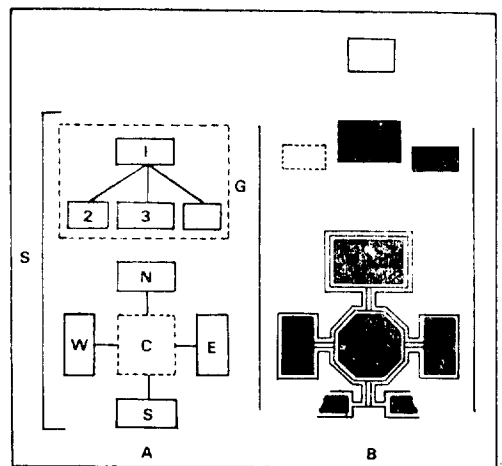
祭祀를 지내는 地壇은 方丘라고 하는 方形의 石段을 세워 象徵하고 있다. 西安의 明堂이 上圓下方의 構造인것도 天圓地方의 宇宙觀을 反映한 건축구조인 것이다.

城門의 配置는 四方神에 따라 東西南北의 四大門이 각각 春秋夏冬을 상징하며, 周禮의 都城에서 一方에 三門이 配置되어 四方에 十二門이 설치되는 것은 12個月의 節季의 運行을 象徵하는 宇宙創造의 反復인 것이다. 西安城의 明堂에 있어서 中心建物の 四方 코너에 四個의 建물이 築造되어 있는 것은 곧 각종 儀式을 四季에 따라 中心建物을 回轉하면서 행하기 위한 五行·天體運行의 象徵인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新羅王京에는 金城·月城 등 여러 宮闕이 동시에 使用된바 있고, 平壤의 長安城에도 3個의 宮城址가 確認되었다. 이에 관한 分明한 記錄으로는 高麗史節要(卷之六) 肅宗元年 八月條 金謂碑가 “11~2月은 中京, 3~6月은 南京, 7~10月은 西京에 巡駐하면 36개 나라가 來朝할 것이라” 奏請한 글에서 볼 수 있다.⁴¹⁾ 季節에 따라 임금의 居處를 開城·漢陽·平壤으로 바꿀 것을 奏請한 것은 平安한 거처도 거처이러니와 宇宙呪術의 의미가 內包된 것이다.

日月星辰을 神格化하고, 天體諸現象을 組織의 으로 構成하여 地上에 反映하려는 中國 古代의 思想體系를 五行思想이라고 하며, 우리의 風水觀이 陰陽五行을 기초로한 思想體系임은 周知의 사실이다. 五行은 四分의 世界觀에 中央部를 포함한 것으로서 漢代 이후 우리에게 傳來되었다.

漢代의 史記「天官書」가 當代의 天文書로서 매우 進步的 體系를 갖추고 있는데, 特記할 점은 星座星宿의 名稱에 帝王·百官·人物·土地·建築物·動植物의 名稱이 附加되어 있고, 全星座는 五個의 集團으로 區分되어 王宮의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五星座의 配置와 똑 같은 高句麗 時代의 建物址를 平壤 附近의 淸岩里에서 發掘한 日本人「米田美代治」는 “漢代의 天文思想이 王宮建築과 密接 不可分의 關係를 맺고 있음을 推察하는 實證의 資料이며, 本遺蹟이 佛寺伽藍으로 推定되는 한 佛教傳來 初期의 伽藍建築形式이 王宮建築을 基本으로 하여 出發한 好例”라고 하였다.⁴²⁾ 그림-5에서와 같이 史記의 「天官書」에는 北偏에 中宮이 있는데 天一·陰德 등의 三星座를 앞에 거느리고 天極星(北斗太一)이 가장 至尊의 위치에 해당한다. 長安式



A. 五星座, B. 淸岩里 高句麗 時代 建物址
1(天極星), 2(陰德), 3(天一), G(中宮), C(黃道),
N(北宮, 玄武), W(西宮, 白虎), S(南宮, 朱鳥),
E(東宮, 青龍), S(五星座)

그림 5 天官書의 五星座와 淸岩里 建物址

41) 金謂碑 上書, 請遷都南京略曰, 道詵記云……十一十二月住中京, 三四五月住南京, 七八九月住西京, 則三十六國朝天……略

42) 米田美代治, 1942, 朝鮮上代建築の研究, 秋田屋, p. 138.

都城에서 宮闕이 北偏位한 이치는 이와 연관되는 것 같다. 中宮(紫微宮) 前面의 五星座가 이른바 朝堂에 해당한다. 따라서 前朝後寢의 구조는 이를 두고 쓰는 말이며, 南쪽의 朝堂이 陽이고, 北쪽의 中宮이 陰이다. 五星座는 中央이 黃道, 이를 四方으로 에워싸고 北宮(玄武), 南宮(朱鳥), 東宮(青龍), 西宮(白虎)이 배치되어 있다. 앞에서 指摘한바와 같이 四分의世界觀은 中央部를 포함하여 五行·五方的 思想과 같은 脈인 것이다.

淸岩里의 建物址가 佛寺伽藍이라 推察된다면 五星座의 中央에 해당하는 八角建物址가 塔婆址이고, 北宮에 해당하는 곳이 金堂, 南宮에 해당하는 곳이 中門址, 東宮과 西宮에 해당하는 곳이 佛殿이라 比定된다. 또한 中宮에 해당하는 三星座는 각각 講堂의 位置이고, 後方의 天極星에 해당하는 殿址는 佛殿·僧房·經鐘樓 중에 하나로 推察되고 있다.⁴³⁾ 결국, 淸岩里 建物群址는 漢代의 天文五行思想에서 영향을 받은 佛敎의 建築文化가 처음으로 長安城 遷都 以前의 高句麗땅에 移入된것을 말하여 주며, 나아가 “天文五行”이라는 四分의世界觀의 體系화된 論理가 佛寺建築을 통해서 韓半島에 移入된 것을 말하여 준다.

四分의世界觀의 風水의 理解는 穴과 四神砂를 포함하는 形局으로 표현되는바 四神이란 玄武·朱雀·白虎·青龍을 뜻하고, 「砂」란 앞에서 언급한 대로 穴을 호위하는 四周의 形勢로서 藏風의 역할을 한다. 穴의 後方, 즉 北쪽의 主山에 해당하는 것이 玄武고, 南쪽(前方)의 案山이나 水口가 朱雀이며, 東쪽의 山이 青龍, 西쪽의 山이 白虎이다. 이때 武龍虎는 威力있고 長生하며 神通力있는 動物神을 象徵한다. 風水에서는 이들을 穴局의 四周衛護砂라고 하는데, 郭璞은 이에 관해서 「玄武垂頭, 朱雀翔舞, 青龍蜿蜒, 白虎踞踞, 形勢反此, 法當砂死, 故虎繞謂之脚屍, 龍踞謂之嫉主, 玄武垂者拒屍, 朱雀不舞騰去」라고 하였다.⁴⁴⁾ 이것은 즉, 玄武가 머리를 드리우고, 朱雀이 뿔뿔하며 춤추고, 青龍이 꼬를겨려 回抱하고, 白虎가 웅크리고 앉아있어야지, 形勢가

그와 反對이면 그 葬은 一族破滅의 厄을 면키 어렵다. 왜냐하면 호랑이가 盤繞함은 무덤의 시신을 두는 것과 같고, 龍이 立踞하면 主山을 투기함과 같으며, 玄武가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시신을 抱藏치 않으려는 것이오, 朱雀이 翔舞치 않으려는 것은 無情하여 主山을 돌보지 않으려는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四砂의 任務는 穴을 위한 보장이오, 穴을 向해 모여 穴에 있어서 化醇을 돕는데 전력을 기울려야 한다. 이것이 曰藏風이다.

龍은 王者와 有文을 표상하고, 虎는 武力과 용맹을 상징하여 前者가 文官, 後者가 武官이나 같다. 단약에 이들 중 하나가 欠하여 그것이 水로 代身될 수도 있는바 이때는 藏風局이 아니고 得水局이라 역시 生氣의 貯積은 가능하다. 이에 대한 事例가 平壤의 長安城인데, 牡丹峯을 主山(여기에 玄武門이 있다)으로 볼 경우에 邑基(王宮址)는 만수대 南麓, 옛 大同郡廳舍 附近에 해당한다. 牡丹峯으로 부터 뻗은 支脈은 左青龍쪽이 너무나 짧다. 이것을 大同江이 代身함으로 平壤의 都邑風水는 水大局을 이루어 흔히 行舟形 風水라고도 한다. 內·外城이 마치 大同江에 매어 놓은 배와 같다는 뜻인데, 그런 理由로 해서 한때 練光亭 아래의 深淵에 鐵製 사슬에 달아 맨 닻을 내리고 있었다.

玄武와 朱雀이 北一南으로 對應한 形勢도 곧 陰陽의 沖和를 뜻한다. 흔히 陽來陰受 또는 陰來陽受란 말이 있는데, 玄武가 垂頭함은 「陰來」, 朱雀이 翔舞함은 「陽受」를 상징한 것이오, 만약에 朱雀이 山이 아니고 물이라면 玄武가 陽, 朱雀이 陰으로서 玄武가 와서 朱雀이 이를 받는 「陽來陰受」의 風水가 된다.

穴을 衛護하는 四方의 形局이 天空原型의 모양인 것은 淸岩里 寺址의 五星座와 같다. 中央의 穴이 土星에 비유된다면 北의 玄武가 水星, 南의 朱雀이 火星, 東의 青龍이 木星, 西의 白虎가 金星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新羅王京 慶州는 半月城이 王基, 小金剛山이 主山이라면, 南川이 內水口, 南山이 案山에 해당하여 각각 水朱雀·山朱雀을 이룬다. 그리고

43) 米田代治, 1942. 上揭書, pp. 159-160.

44) 村山智順, 1931. 前揭書, pp. 52-53.

明活山이 左靑龍, 仙桃峯이 右白虎에 해당하고, 殿廊址→土城址→半月城→南山을 잇는 直線이 軸이다. 흔히 慶州와 泗泚城을 半月城이라 하고 半月形 風水라 일컫는데, 이는 都城의 形狀 뿐 아니라 半月은 장차 滿月에 이르는 希望이 있기에, 이를 바래는 民俗信仰과 연관된다. 新羅의 脫解王이 王位에 오르기 전에 吐舍山에서 居所의 땅을卜한 결과 陽山 밑의 瓠公의 집터가 吉地인지라 거짓 피를 내어 이를 빼앗아 살았고, 이곳이 후에 와서 半月城이 되었다고 한다.⁴⁵⁾ 月城이 中心位置요, 이를 吉地로卜한 사실, 그리고 이것이 四神砂로 衛護되어 있는 사실에서 風水思想은 이미 新羅初期 부터 알려져 온 것임

表-1. 五行·五方の 象徴
(韓國과 中國)

行	方	向	季	時	色	神	臟	穀	畜	德	王
大	東	左	春	朝	靑	龍	肺	麥	羊	仁	太皞
火	南	前	夏	晝	赤	鳥	心	菽	雞	禮	炎帝
土	中	中	·	·	黃	人	脾	稷	牛	信	黃帝
金	西	右	秋	夕	白	虎	肝	麻	犬	義	少皞
水	北	後	冬	夜	黑	玄武	腎	黍	彘	智	顓頊

(인도네시아)

方	色	自然物	性格
東南	白 朱	風·水 山	包容 貪慾
中	多色, 灰色	土	
西北	黃 黑	金·酒 火	華奢 不屈·頑固

(Keresan Pueblo Indian)

方	色	神	動物	神名
東南	白 朱	鳥神 農神	늑대 살쾨이	Shruwisigyama Maiyochina
西北	靑 黃	疑人神 冬雪神	곰 무마	Shruwitira Shakak

45) 三國遺事, 卷第一, 第四代 脫解王 條
三國史記, 卷第一, 脫解尼師今 條

46) Tuan, Y.-F., 1971, 前掲書, p. 21.

47) 東쪽은 늑대, 西쪽은 곰, 南쪽은 들고양이, 北쪽은 무마로 象徴한다.

을 알 수 있다.

四分的世界觀은 時間(朝晝夕夜), 臟器, 畜生 등도 象徴하는바 中央部를 포함한 五行·五方の 象徴을 모두 종합하면 表-1과 같다. Tuan은 이러한 四分의 世界觀을 인도네시아,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그것과 比較한바 있다.⁴⁶⁾ 大平原에 사는 Oglala Sioux族은 北쪽은 白色(白靑風), 西쪽은 黑色(먹구름·우뢰와 비), 南쪽은 黃色(어름·成長), 東쪽은 赤色(빛·셋별·지혜)으로 象徴하고, 美國 南西部의 Keresan Pueblo 인디언의 世界는 北쪽을 黃色(겨울과 눈의 神), 東쪽을 白色(鳥神) 南쪽을 赤色(農神), 西쪽을 靑色(人神)으로 상징하며, Zenith는 갈색의 여우神, Nadir은 黑色의 두더지神이라 했다.⁴⁷⁾

4. 對置와 調和의 世界

周禮의 都城이나 長安式 都城이나 간에 각종 施設의 配置는 對稱의이고 調和로운 原理에 입각한다. 左에 天壇이 있으면 右에 地壇이 있고 日壇이 있으면 月壇이 있다. 北京을 例로 든다면 左에 太廟가 있고 右에 社稷壇이 있는데 前者는 현재 勞動人民文化宮이 되어 있고, 後者는 中山公園이 되어있다. 祖上을 되시는 前者는 하늘이며 陽이고, 土地(社)와 穀物稷神을 地母라 하여 後者는 陰으로 표현된다. 陰과 陽이 對置的으로 存立함으로써 Balance와 調和를 이룬다.

이것은 正反合 運動에 의한 西洋의 辨證法과 類似한 개념이다. 中國에서는 戰國時代末에 相反과 應合의 論理가 나왔다고 하며 相反은 西洋의 論理에서 定立(These)과 反定立(Antithese)의 對立을 뜻한다. 이 상태는 영구히 계속됨이 아니고 서로가 모순을 버리고 相互依存하여 合한다는 뜻에서 應合이다. 즉, 陰과 陽의 兩極이 상호 調和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中國인들이 事物을 보는 根本 視角은 陰陽의 調和이다. 心身의 疾病은 陰陽의 不和에서 오는 것이오, 農事의 豐凶도 陰陽의 和·不和, 사람 끼리

의 갈등도 陰陽의 不和에서 온 것이다. 따라서 葬地 선택과 家屋의 건축, 寺院·宮闕의 건축을 비롯해서 都城의 計劃築造에 이르기 까지 陰과 陽의 調和를 꾀하려 노력한다.

결국 陰陽은 時空上의 상반되는 구체적 양상, 즉 陰은 땅, 구름, 비, 여성, 겨울, 內面性, 들 등 그늘진 것을 가리킨다면 陽은 빛, 열, 봄, 여름, 남성, 하늘 등을 가리킨다.⁴⁸⁾ 易經에 의하면 이 兩者 중 한 原理가 지배하면 나머지 하나는 被支配가 되는 이른바 五行相生·五行相克이란 循環의 秩序를 만들고 있다. 陰陽 서로가 상대방을 보완하거나 약화시키며 週期的으로 변하기 때문에 秩序와 調和가 유지되고, 이러한 질서와 조화의 原理를 感應이라고 했다. 陰宅風水에서 穴은 어머니(地母)이오 屍身은 아들에 비유되고 陰陽이 冲和되는 穴이라면 어머니와 아들이 잘 感應하여 子孫에게 榮華가 돌아간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漢文化圈의 都城에서 前朝後寢은 朝堂이 南쪽의 陽이라면 宮闕은 北極星아래 北偏位置의 陰이다. 또한 面朝後市도 政治와 經濟가 각각 宮의 前後에 配置되는 對置—調和의 原理인데 前者가 陽이고 後者가 陰이다. 中心과 四方周邊이 對稱—調和되고, 都城의 四邊 城門이 青龍(東門)—白虎(西門), 玄武(北門)—朱雀(南門)으로 對置·調和를 이룬다.

이러한 兩極의 調和는 中國의 陰陽思想 처럼 體系化가 되어 있지 않을지언정 Archaic Society에서 흔히 體驗되는 일이다. 이러한 社會일 수록 저들의 深層言語는 自然物로 상징되기 때문이다. 가령 原始人들이 가장 쉽게 接하는 神秘的 自然物로는 해와 달이 있을 것이고, 하늘과 땅이 있으며, 저들이 쉽게 接하는 각종 動植物이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原住民과 世界各地의 資料를 分析하여 역시 象徵的 二元論의 世界가 있다는 것을 確認한 和蘭의 人類學者 J.P.B. Josselin de Jong은 이 兩極을 中和시키는 神이 인도네시아의 神話에 등장한다고論하

고 있다.⁴⁹⁾ 셀레베스 南쪽, Flores섬에 사는 原住民 리오族이 상징하는 兩極性의 基本的인 言語는 Ulu와 Eko인데, 前者는 머리, 後者는 肛門을 뜻한다. 본래 뱀의 머리와 肛門을 상징하는 이 兩極은 배꼽에 의해서 中和가 된다. 이러한 Metaphor는 家屋의 內部構造·棟配置, 聚落構造에 잘 反映되는데 四角이나 圓形의 마을에 바다를 向하여 出口(Eko)가 있고, 山으로 向해서 入口(Ulu)가 있다. 마을의 中心에는 약간 높은 廣場이 있고 이곳에 巨石柱와 環狀石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곳이 天地와 男女가 결합되는 배꼽에 해당한다. 出口와 入口의 兩極을 中和하는 聖所요, 우리나라 風水의 穴에 해당한다. 左側에 제일 큰 建物이 있고 그 對稱인 右側에 男子用 내지 客用 사랑채가 있다. 말하자면 안채와 사랑채의 對稱이다. 이 밖에 巨石柱가 있는 中心廣場을 둘러싸고 여섯채의 建物이 있는데 이는 각각 兩極인 左右, 上下, 前後를 상징한다.⁵⁰⁾ 우리나라의 四分의 世界觀이 中心部를 合하여 五行·五方의 思考인 것과 마찬가지로 리오族의 世界는 六分世界에 中央部를 合하여 七方·七極의 世界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같은 相反된 兩極의 結合(Coincidentia Opposition) 즉 兩極을 제 3의 조건으로 변형시키는 次元 높은 合성에 대한 原型의 心像을 칼·융은 統合象徵(Unifying Symbol)이라 했다.⁵¹⁾

결국, 對置와 調和의 思考도 Archaic Society에 있어서 宇宙的 象徵이오, 原型反復의 한 모습으로서 通文化的 現象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中國을 비롯한 韓半島에 있어서는 이러한 現象이 陰陽風水說로 體系化되어 大規模의 都城計劃에 反映될 정도의 큰 文明力으로 뒷받침이 되었다 할 것이다.

結 語

本 研究는 漢文化圈의 都城空間에 있어서 地理的 랑가주(Langage)를 理解하기 위한 作業이

48) 崔昌祚, 1984, 韓國의 風水思想, 民音社, p. 72.

49) 山口昌男, 1984, 文化人類學への招待, 岩波新書, pp. 79-80.

50) 山口昌男, 1984, 上掲書, pp. 120-122.

51) Jacobi, Y., 칼·융의 心理學(李泰東 譯, 1978, 成文閣) p. 220.

다. 말하자면 옛 사람들의 價值體系 내지는 宇宙觀이 都城計劃에 어떻게 나타났으며, 이것이 무엇을 意味하고, 또한 우리의 風水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기 위한 研究이다. 接近의 側面은, ① 中心이 무엇을 象徵하는가, ② 四分空間, 즉 四分的 世界觀은 어떻게 나타나고 무엇을 象徵하는가, ③ 兩極의 對立과 調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옛 사람들이 남겨놓은 都城景觀에는 當代 帝王의 權威나 臣民들의 宇宙觀이 劇적으로 나타나, 옛날의 都城計劃은 機能性 못지 않게 象徵性도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1. Topophilia란 말은 “分析的 對象으로서 空間”을 “理解的 對象으로서 空間”으로 보기 위한 새로운 地人關係의 表現이다. 이 개념에는 原型으로 復歸하기 위한 Archaic Spirituality가 숨겨져 있는데, 原型復歸의 가장 刮目된 表現이 地表上에 만들어 놓은 小宇宙이다. 筆者는 이것을 「傳統的 文化景觀」으로 보고싶다.

2. 小宇宙의 創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中心의 象徵과 中心의 選定인데, 옛 사람들에게는 中心이 聖山(Sacred Mountain), 배꼽, 須彌山(Meru), 地軸(Axis Mundi), 太極(天極), 光源, 母胎 등을 상징한다. 韓國의 傳統的 風水觀에서는 이를 穴이라고 하며 都邑風水에서는 宮闕의 位置가 된다. 이곳은 陰과 陽이 沖和되고 “氣”가 充滿한 곳이며, 至高의 存在인 임금은 이곳에서 地心과 天上(北極星)을 연결한다.

中心이란 반드시 地理的·測地的 中心이 아니기 때문에 宮闕의 位置가 北偏할 경우도 있고, 南偏할 경우도 있다. 後者로는 타일란드의 歷代 都城이 있고, 前者의 例로는 漢文化圈의 長安式 都城이 그러하다. 宮闕의 位置가 北偏한 것은 北極星의 位置 및 太極의 解釋과 관련되는 듯하다.

中心의 選擇은 Chaos의 世界에 形態와 規範을 부여하여 Cosmos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中心 選定을 위한 각종 祭儀는 곧 宇宙創造의 모습을 再演하는 象徵이다.

3. 都城에 있어서 中心은 東西軸과 南北軸이 交叉되는 곳인데, 이곳이 光源이라면 東西南北의 軸은 Spectrum을 상징한다. 中心에 位置한

至高의 存在(天子)가 四方을 支配한다는 것은 中心의 生氣를 四方에 分配한다는 뜻이며, 이로부터 世上萬事가 四分的 世界觀에 적용된다. 특히, 行政組織을 비롯해서 城門의 配置, 建物の 配置, 陰宅風水의 形局, 都邑風水의 形局 등은 中心과 四分世界 즉 史記「天官書」에 있는 五星座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中國의 陰陽五行思想은 곧 如斯한 Archaic Spirituality를 體系化한 知識이다.

都邑風水의 四分世界를 보면, 宮闕이 穴이고 朝廷이 明堂에 해당하며, 이를 에워싸고 있는 四方의 山과 水를 四神砂라 하여 動物神으로 象徵한다.

前後左右의 水平空間은 Euclid 空間과 같은 等質空間이 아니라 人間의 知覺面에서는 意味가 다른 異質空間이다. 그래서 東西南北이 때로는 星座·動物·人體·色으로 상징되는가 하면, 때로는 性格·德行·神像·時間·季節·穀物 등으로 表象된다.

4. 古代 都城計劃에 있어서 각종 施設機能의 配置를 보면 매우 흥미로운 것이 「對置와 調和」를 고려한 점이다. 左廟가 있으면 右社가 있고, 面朝와 後市로 政治와 經濟가 對稱이며, 面朝와 後寢, 日壇과 月壇, 左青龍(東門)과 右白虎(西門), 玄武(北門)와 朱雀(南門) 등이 교묘하게 對稱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二元的 象徵論은 비단 都城計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住宅建設·마을組織, 심지어는 사람의 體質이나 人間問題, 社會問題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兩極은 永久的인 對立이 아니라 陰陽의 和合에 따라 調和·均衡을 이루어 마치 辨證法的 合一에 이르는 것과 같이 된다. 兩極의 對立과 調和는 世界 도처의 Archaic Society에서 관찰되는 사실이나 西洋人들은 이를 辨證法的 論理, 東洋人들은 이를 陰陽의 論理로 體系化한 것이다.

地上에 投影된 小宇宙는 곧 原型에의 復歸로서 汎文化的 現象이다. 다만 그 地方 住民의 集團 Fantasy가 무엇으로 表象되었느냐가 다를 뿐이다. 장차, 우리는 이에 對해서 傳統風水의 깊은 理解와 더불어 각종 表象의 事例를 많이 수집하여 比較考察함으로써 傳統文化의 深層言語를 옹게 理解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Observations on Cosmic Symbolism Represented through an Ancient Royal City Planning

Kie-Joo, Hyong*

Summary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geographical language" of the ancient royal city planning in Chinese cultural realm. Its attempt is to answer the questions such as: ① What is symbolized by the palace enclosure within royal cities? ② Conceptually, what is the quadripartite world in its relation to royal cities? ③ What is the symbolic meaning of the various functions which are allocated in the form of binary opposition? Here, the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some relationships between the questions raised in the above and the idea of Korean traditional Feng-Sui theory (Geomancy 風水).

The construction of royal city is well reflected through the weighing of both functional and symbolic needs: especially, the construction puts its major emphasis on royal prestige, national value system or aspiration, and cosmism.

The royal palace placed at the center is symbolically designed to dominate the city and, in its turn, the world. It also symbolizes a source of light, a matrix of all creatures, "axis mundi" which is facing the Polar Star and celestial meridian, and sacred mountain like Isreli Golgotha or Indian Smeru (須彌山), allegedly, navel of the land where the Sovereign make possible the linkage of the man to the God.

In terms of the Feung-Sui, such place is defined as "Hyol" (穴) wherein is accumulated

"Ki" (氣), ether or aspiration of cosmos, generating Yang (陽) and Yin (陰), i.e., complementary principles of binary opposition. In the Chinese schema, Yin symbolizes female, passive and water, on the other hand Yang implies male, joy, fire and phallicism. The flow of "Ki" varies from time to time, from place to place and is subject to the circulation of celestial bodies. "Hyol" is not a geographical but a symbolic center which is identical with Polar Star. This is why the palace quarter of Ch'ang-An during the T'ang period was removed towards the north wall.

"Founding" of the royal quarter implies transforming from chaos into cosmos by endowing it with certain forms and orders just as God first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As a symbol of the cosmos, the city takes on the regular geometric shape of a circle, square or rectangle. In terms of the Chinese schema, the circle which is divided into four sectors by two axes symbolizes heaven, while the square with its four or twelve gates implies the earth or the artificial world.

The quadripartite world corresponds to the spectrum radiating from the source of light just as peripheral profane world in which flows its ether (Ki) from "Hyol," sacred place (center). The circle is a figure with an infinite number of sides. In practice, people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have found it convenient to reduce infinity to four, to put it in detail, to four sides

Geography, Korean Geographical Society, No. 32, pp. 24-38, 1985.

*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of rectangle, the four quarters of heaven and earth, the four seasons, and cardinal direction. In Chinese schema, each side of the square, city wall, may be identified with daily position of the sun or with each of the four seasons. The east side, with the blue dragon as its symbol, is the locus of the rising sun and of spring. The south side corresponds to the sun at its zenith and to summer, and is symbolized by the red phoenix of "Yang." On the west side the white tiger stands for war and is identified with autumn, weapon or intrepidity. The cold region of the north lies behind the "Hyol," and is symbolized by hibernating black reptiles and the "Yin" element of water. In terms of Feung-Sui for city planning, these four symbols are also topographically illustrated by mountain and water.

The idea concerning the center and quadripartite world has its origin in the ancient astronomy, and its system consists of five elements(五行), that is, earth(center), wood(east), gold(south), fire(west) and water(north).

The various kinds of functions in the ancient royal city planning are allocated in the form of binary opposition which is as follows: audience hall(political center) in the front and public market(economic center) in the back; the royal ancestral temple in the east and the altar of the earth in the west; the red phoenix of "Yang" in the south gate and hibernating reptiles of "Yin" in the north. Such bipolar location is not contradictory but harmonious on the whole as a parallel to a dialectic logic in the European thought. It is tempting to interpret the whole schema as an evolutionary process through which simple categories based on binary oppositions are transformed into schemata of increasing complexity, and arrive at harmony and unity.

Finally, the micro-cosmos projected on the earth surface implies an elaboration for repetition into archetype. This may be a universally shared phenomenon although modes of symbol and structure vary cross-culturally in time and space.